

1. 개요

- 일시/장소 : 2019. 11. 14(목). 10:00~12:00 / 농특위 대회의실
- 참석인원 : 20명
 - (농특위) 황수철 분과위원장, 임성규 팀장, 곽은경 사무관, 전영미 사무관, 김진호 비서관
 - (에너지전환포럼) 양이원영 사무처장, 김종안 이사
 - (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) 이성호 수석전문위원(기후변화대응에너지전환(협)) 김재삼 이사
 - (한국농어촌공사) 조현욱 처장, 김대성 부장
 - (한국농어촌공사 괴산지사) 양희경 지사장, 김종필 계장
 - (농협경제지주) 진종문 부장, 김창순 팀장, 구도환 계장
 - (농협중앙회) 류정훈 팀장, 노을 계장(순천농협) 김성우 과장
- 주요 내용
 -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협의 태양광사업 추진사례 발표
 - 농어촌 현장에서의 태양광사업 등 재생에너지 추진 현황,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과제 논의

2. 주요내용 및 결과

- (발표1) 한국농어촌공사 재생에너지 추진 개요
 - 목적 : 정부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기여, 발전수익금 수리시설 유지 관리 재투자 및 지역사회 환원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
 - * '18년까지 95개소 61MW 추진 : 수상태양광발전소 19개소 17MW, 육상태양광 발전소 32개소 16MW, 소수력발전소 42지구 23MW, 풍력발전소 2지구 5MW
 - 사업추진 방법 : 농업인협력사업, 농업인투자사업, 대규모 사업
 - 향후계획 : 지역주민과 상생협력을 통한 사업유형 다각화, 새만금태양광사업 및 염해간척농지활용 사업 추진 등
 - * '18년까지) 61MW → '22년까지) 422MW 확대
 - 건의사항 : 한전의 계통 연계용량 확보 및 공익목적의 발전사업 확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규제 완화

□ (발표2) 농협 태양광발전 추진현황

- 농가단위 컨설팅 및 금융 지원 추진
 - (현황) 우수 시공업체 17개소 선정 농가에 태양광컨설팅 지원, 총 5,911건에 1조 3,816억원 대출 지원
 - (계획) 농가 컨설팅 지속 추진 및 정책자금 등 농협의 태양광대출 확대
- 마을단위 태양광조합 시범사업 추진
 - (현황) 신청 15건 중 1개 농협(보성농협) 마을단위 태양광조합 추진 중
 - * 14건은 지자체거리규제, 한전선로 용량부족 등으로 추진 불가
 - (계획)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 유형 다각화로 마을단위 조합사업 활성화
 - * 유형① : 태양광조합, 유형② : 태양광사업자조합, 유형③ : 저수지태양광조합
- 농협 건물 등 활용 자체 태양광발전소 추진
 - (현황) 지역농협 31개소, 경제지주 1개소(안성농산물물류센터) 운영
 - (계획) 농협 자체 태양광발전사업 지속적 확대 추진
 - * 지역농협 : 1농협 1태양광발전소 운동 추진 (약 1,200개소)
 - * 경제지주 : '22년까지 25개 사업장(22MW)에 설치 예정
- 건의사항 : 농업인 최저가격보장제 도입, 거리 관련 지자체 조례완화 등

□ 주요 논의사항

- 재생에너지 관련 국가적 현황
 -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* 추진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 시행계획 부재
 - *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%까지 상향하겠다는 정책(2017.12월발표)
 - 우리나라는 에너지전환 속도가 OECD 최하위 수준으로, 향후 CO2 풋프린트가 무역 규제화 될 가능성에 대한 국가적 대비 미비
 - * 유럽의 경우 3050수준(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50%)으로 추진 중
 - 한전의 송배전망 독점 및 대량 전기공급 중심의 송배전 관리체계
- 농어촌지역 태양광발전 추진 시 문제점
 - 환경오염, 전자파 등 태양광사업에 대한 가짜뉴스 팽배, 경관훼손 및 지가하락 원인이라는 인식, 단순 돈벌이 사업으로 치부 등

- 도로나 주택에서 단순 거리로만 산정하는 이격거리 규제
 - REC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개별 농민이 사업 참여 어려움
 - * REC :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발급됨
예) 일반부지 : 1.2(100kW 미만), 1.0(100kW 부터), 0.7(3000kW 초과), 임야 : 0.7 등
 - 한국의 태양광 설치단가 보상비 등 간접비 영향으로 외국에 비해 높음
 - * 간접비(인허가비, 부담금, 일반관리비(보상비 등)) 전체의 1/3 차지
 - * 보상비 초기 MW당 천만 원에서 최근에 1억까지 상승
 - 농어촌지역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한 개선의견
 - 국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 공급계획 수립
 - 단순 이격거리 기준 규제 대한 현명한 대책 마련 필요
 - * 예) 전문가 실사 및 농민의 의견이 반영되면 이격거리 규제 완화
 - 농어촌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사업모델 개발 및 추진 필요
- * 충북태양광협동조합 사례(도시와 농촌 연계형)**

 - 도시민 연금과 농촌태양광을 결합하는 아이디어를 냈. 농민들은 부지만 제공, 도시 태양광 조합에서는 부지 20년 임대료를 선수금(땅 시가의 80% 정도)으로 제공, 선수금 자본금으로 활용
 - 예로, 농민의 땅 1000평 중 300평 100kw는 선수금 받아서 태양광 짓고, 나머지 200kw 도시 태양광 조합에서 선수금을 제공하고 임대하는 방식. 농민이 1000평의 땅을 활용할 경우 월 1백만 원 소득 가능.
- 지역개발 관련 정책사업 추진 시 태양광사업 함께 추진 가능토록 하여 지역의 지속적인 수익기반 창출 기회 제공
 - 한전의 전기사업부분과 송배전 부분, 분리하는 정책 검토 등

3. 향후 주요일정[안]

-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어촌에너지 전환 토론회(11.26)
 - 농어촌에너지 전환 관련 사전학습 및 토론, 2020년 논의 과제 및 운영 방향 설정 등